

일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상정도 못해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농민수당 조례안도 보류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 선임 반대 의견 불일치

광주시의회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제 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5조7751억원을 심사해 44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5600만원을 감액했다. 사업별로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에 35억원을 증액하고 남광주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9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약상설공연 출연보상금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광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비 3600만원, 광주시 한마음직원체육대회 예산 2000만원도 삭감했다.

또 시의회는 조례안 45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보고안 5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안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광주시 e-스포츠 진흥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 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광주시 분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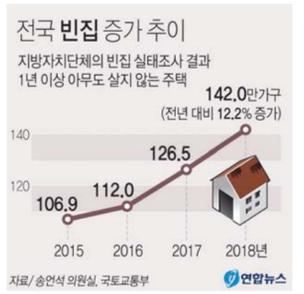
반면 회기 동안 조례안 상정 과정에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을 하며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충분한 의원 논의 없이 성명서를 내는 등의 촉구를 빚기도 했다. 실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의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 전체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하고도 시 재정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자치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농민회 등의 반발이 있는 점 등을 들어 23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무작정 조례안을 내고, 이를 동료 의원들이 무작정 서명해주는 관행도 여전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의원 4명 만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수장 선임이라는 중요 사안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전혀 의견을 모으지 못해 몇몇 반대 입장의 의원이 뒤늦게 성명서를 낼 수 밖에 없었다. 개최일인 지난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이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시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도 빚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빈집 15만5868가구 전국 141만9617가구...해마다 늘어

전남 11만8648가구 전국 4위

일본에서 고령화·저출산으로 도심까지 빈집이 불어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빈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빈집은 지난해 기준 3만7220가구로 지난 2017년 3만 3569가구보다 10.9%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만6705 가구, 2만 9127 가구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빈집이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만3333 가구에서 2016년 10만2257가구, 2017



년 10만9799가구로 줄었지만 지난해 11만8648가구로 전년 보다 8.1% 증가했다. 전남지역 빈집은 경기도 24만9635가구, 경북 13만6805가구, 경남 13만 1870가구로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개소식 & 한국지의학학회 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14:00 장소 |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5층



전남대 생체의료시험 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 개소식이 25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치과병원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한은미 전남대 부총장,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 양항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 포럼 개최

장병완 의원 법안 발의 탄력
광주시는 25일 전남대학교 생체의료기기 시험연구센터에서 치의학 발전과 한국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박창현 광주치과의사회장,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 치과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치과산업의 종합적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한국지의학연구원 설립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경재 조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치의학 등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치의학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6%로 급성장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0월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중이다. 지난 8월30일 장병완 국회의원이 한국지의학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치과를 중심으로 한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집

중 육성해 왔고, 국내 최대 치과클러스터인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및 '치과생체의료기기 시험연구센터' 등 핵심기반을 구축했다. 그 결과 치과관련 기업이 2010년 40여 곳에서 2018년 기준 180여곳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뤘다. 손경중 시 전라산업국장은 "광주는 2곳의 치과대학 보유 및 치과용 소재부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치과클러스터 구축 등 세계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치의학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해 2030 글로벌 메디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확산 분위기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광주지역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 강화, 축산농가 소독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일 돼지 850여 마리가 도축되고 있는 관내 도축장 2곳에 대해서는 도

축 전·후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유무와 출입차량 소독필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자체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안팎과 주변 도로 등을 주 2-3회 소독하고 있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8월까지 관내 모든 돼지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55억 들여 100대 매연저감장치
광주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 55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1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구형 디젤엔진 270대를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다. 엔진교체 사업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구형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감장치 제작사 및 엔진교체 사업자를 선택해 신청 후 계약을 하면 이후 제작사 및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등)를 대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